

2022

희움  
Festival

드리미학교 4기 박신미  
신앙과 배움, 삶과 공동체를 빛다.

Dreamy School





# 사명선언문

## 영상 제작자로서의 사명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영상물을  
만들어 그들에게 위로를 준다.

## 작가로서의 사명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나 자신을 알아가고 나와  
같은 이들이 자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한다.

## 본질적 사명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된다.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

##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삶을 산다.

##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사명

가족으로써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느끼게 한다.

-하루에 하나 이상 영상 분야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를 익힌다.  
-일주일에 한 권 이상 심리학 책을 읽고 공부한다.  
-심리치료를 공부하고 시시때때로 또래 상담을 해 준다.  
-심리, 공감에 관한 책을 읽고 이에 대한 감상문을 일주일에 한 번 작성한다.

-자서전을 매 달 한 권 이상 읽는다.  
-자화상을 격주 1회 이상 그린다.  
-매일 밤 오늘 내가 어땠는지 나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2주에 한 번 이상 감정에 따른 내 얼굴을 그려본다.

-매일 자기 전 성경구절을 한 장 이상 읽고 와닿는 구절을 묵상한다.  
-생각하는 바를 글로 쓰고 상세하게 적어나가며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  
-일주일에 한 권 이상 자기계발 책을 읽는다.

-매일 밤 자기 전 오늘의 성찰할 부분과 감사한 부분에 대하여 일기를 쓴다.

-기꺼이 가족을 섬긴다.  
-주도적으로 집안일을 한다.  
-가족에게 바르고 이쁜 말을 쓴다.

# 목차

## 빛음 1단계

- 사명선언문
- 신앙에세이
- 타임엔지니어링 감상문
- 언어빛음 감상문
- 정의 에세이
- 공동 성결서약문
- 절제하는 삶의 원칙

## 빛음 2단계

- 성결 에세이
- 정직 에세이
- 평화 에세이
- 지역 연구 인물 인터뷰
- 문제해결 프로젝트
- 3P창의활동 계획서
- 빛음 2단계 소감문
- 미리쓰는 '나는 배웠다'

빛음 1단계

## 신앙 에세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가 들어온 성경말씀과 설교는 정말일까.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을 따르는 것이 참된 진리일까. 처음에는 부정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에 이를 벗어났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저 하는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싫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위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다. 모두 하는 것을 나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외로웠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싶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는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분을 원망하고픈 것도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사람인가 물음이 들었다. 복음사경회 때 기도드리며 생각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를 제 스스로 미워하게 놔두셨는지. 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할 때에 그 것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것만 같은지.

물음에 물음의 꼬리를 물고서 내게 오는 답은 결국 내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럴만한 인간인가 싶었다. 악한 생각을 하는 것조차 죄라는데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악한 생각을 하며 살아오고 있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나쁜 행동 안 하고, 욕설 안 한다고 나를 선하게 포장하였다. 하지만 나는 선하지 않았다. 선하긴 커녕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남을 정죄하고 질투하며 비교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해주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리도 퍼부어 주시는가?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지금에도 내가 욕망하는 것은 여전히 세속적이며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지난 번 복음사경회 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가 떠올랐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 해 주고 용서해 주었는데, 계속해서 다른 이의 아이를 배어 낳은 고멜은 호세아를 피하고 도망치고 거부하는 모습이 마치 나를 계속 부르시며 사랑한다고 해 주시는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을 피하고 다른 세속적인 것을 찾으며 또 죄를 지어가는 내 모습 같았다.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 인간인가.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믿는다고 말을 할 수도 없으니 나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사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두 번째 생을 얻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데,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간다. 이를 깨달으니 이런 내 자신이 너무나 염치없게 느껴졌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지혜와 복조차 받지 못하는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 기구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더욱 더 선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고싶어하시는 것을 알고, 그 사이를 막는 죄를 내게 있어서 없애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억울해 했는데, 많은 것을 알게 된 지금 내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값졌다. 나는 너무나 감사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다. 때문에 앞으로의 내 삶에 있어 매일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질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과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를 계속해서 빛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타임 엔지니어링 소감문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이란 사건의 연속이다. 때문에 시간 관리란 사건 관리이다. 내 삶에 들어갈 사건은 좋은 사건이어야 하는데, 이 좋은 사건의 기준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에 마땅한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사건을 나는 얼마나 빈번하게 일으킬 것인가.

우리는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 시간을 초월해 과거에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배운 내용들을 현재에 적용시키며 시간을 초월하여 미래로 가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내어 그를 위한 방법을 현재에 적용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압축시켜 한 가지 일을 몰입하여 폭발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내가 그 힘을 만들려면 압축적으로 살아야 한다. 시간을 압축하여지만 무언가가 이루어진다. 내게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압축하여지만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알고 분석하고 정리하여 살아간다면 보통 사람들과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다.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보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해내야 한다.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주어졌을 때 가지치기하고 회피하며 핑계대기 보다 그것들을 다 해내야 한다. 나의 업에 있어서 돈은 그저 따라오는 것이다. 내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안된다. 때문에 내가 나의 업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된다. 그것에 대해 염려치도, 구하지도 말아야 한다.

불가능한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게 되어있다. 때문에 내가 무언가가 떠올랐을 때 그것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포기하기보다는 그 떠오른 것들에 계속해서 살을 붙여야 한다. 뼈대를 쌓고 구석구석 살을 붙이며 이를 구체화 시키다 보면, 내가 떠오른 바는 반드시 실체가 될 것이다.

내게 주어진 일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시켜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까워 지는 것이다.

## 언어빛음 소감문

우리는 일상속에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나누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중에서 듣기 좋은 말은 어느 정도나 될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어느 정도나 될까.

말은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이다. 말을 통해 우리는 서로 교제하며 사랑한다. 이렇게 귀하게 나에게 주신 말과, 이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한달 전 있었던 언어빛음 수업에서 우리는 우리말이 얼마나 아리파운지. 이 한글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언어인지. 그리고 욕들에 대한 어원을 아는 수업을 들었다. 그리고 선 큰 포스트잇에 언어생활을 잘 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하여서도 적어 보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포스트잇에 적은 말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드림이 생활을 한지 두 달을 향해 달려가며 나의 언어는 잘 빛어지고 있는가.

의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없었다. 아무리 즐이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입에 붙어 이미 익숙해진 언어는 무의식적으로 나왔다. 자꾸만 그렇게 되었다.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이 언어빛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공동체에서 바른 언어만을 사용하길 위하여 간절하게 소망했다. 언어 뿐만 아니라 언어와 같이 무의식 중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좋지않은 것들을 빛을 수 있기를 바랐다.

## 정의 에세이- 정의를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의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앞서 밝히자면 수업을 듣기 전 내게 있어서의 정의란 공동체의 선, 그것을 따르는 것이었다. 다만 가치기초소양 수업의 내용을 듣고 곱씹으며 정의는 내게 있어 조금 더 깊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단순히 공동체의 선만을 정의라고 내릴 수 없으며, 너무나 모호하며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에 있어 개념을 찾기 어렵다고 느꼈다. 가치기초소양 수업을 들으며 나 뿐만이 아닌, 학생들 중 그 누구도 정의에 대해 쉽게 정의내릴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 -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正義)는 바를 정에 옳을 의,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뜻한다. 그렇다면 정의에서 말하는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에 대해 고찰하며 그의 의미를 찾던 도중 가장 인상 깊게 내게 다가왔던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라는 말이었다. 정의란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올바른 도리인 것인가 싶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정의에 대해 파고들수록 의문점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재판장 안에서 피의자를 심판할 때에, 피의자가 그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와 형량에 대해 부정한다면 이는 정의가 아닌 것인가? 범죄가 일상인 나라에서 한 사람이 이를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인가. 이미 모두가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곳인데, 한 사람의 도덕적인 기준이 이 나라 전체와 맞지 않는다고 해도 이 사람은 나라를 정의롭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각 개인마다 올바른 기준이 다를텐데,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것이 정의라면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보기에 너무나 낮은 기준이 아닌가. 사회에서는 왜 정의를 추구하는가, 정의의 사전적 의미에서는,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올바른 도리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법이라 지칭하는데, 그렇다면 법은 정의라고 할 수 있는가? 사전에서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모두가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렇다면 법은 이 사회에서 참된 이치라고 할 수 있는가? 누군가 내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이것을 정의의 개념이라 부를 수 있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법은 사회에 있어 정말 최소한의 것이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뜻한다기보다 안전선의 느낌이 훨씬 강하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 -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당최 끝이 나지 않는 물음에 정의 속 진리라는 것에 대해 더 찾아보니 여러 의미 중 '참된 이치'라는 뜻이 눈에 보였다. 참된 이치,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형용한다. 그렇다면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올바른 도리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성경적 정의란 약자를 돌보는 것이며, 인자를 동기삼아 행동하는 것이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다. 또한 정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형벌 이상의 것이자 약한 자들의 권리를 방어해 주는 것이다. 너그러운 관용 또한 정의며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정의를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를 행하는 것이 정의의 실천이다.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정의에 관해 명확한 답을 주고 있었다. 진리, 즉 참된 이치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며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인가? 정말 그런 것일까. 그렇다면 좋겠다. 모두가 성경에서의 정의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그 곳은 너무나 정의로운 곳이 되지 않을까.

- 오늘날 사회는 정의로운가?

하지만 오늘날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 불로소득, 즉 일하지 않은 채 수익을 얻는 주식, 투자 등의 행위가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소득격차가 벌어져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무의미한 소비를 한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곳에 많은 돈들이 돌아간다. 시민들의 도덕 기준은 법에 맞추어, 그 최소한의 법에 따라가며 살아가다 보니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도, 성경에서 정말 하지 말라는 일들도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문화 콘텐츠에서는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이 사회가 악한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을 주도하고 있고 온라인 상에서도 많은 악한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성격으로 치부해버리는 탓에 다른 많은 이들이 상처받는다. 이익만을 추구하여 다른 나라의 기업 아이디어나 상표를 도용해 이윤을 얻고,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권리, 이동권도 보장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일어나기도 한다. 사람들은 환경에 있어 당연시하게 누려놓고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려 하지 않으며 노동을 착취해 만든 상품을 소비하여 착취되는 노동이 끊이지 않게 한다. 지구 반대편, 마실 물이 없어 흙탕물을 마시고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을 먹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도 사람들은 손을 씻을 때에 거품질하는 몇십초 간 수도꼭지를 닫지 않고 그 많은 물을 계속 흘러보낸다. 그저 배부르다는 핑계로 자신이 식판에 담았던 많은 음식물들을 그저 버려버린다. 많은 개발을 추구하며 열대우림과 숲들이 사라져 가니 동물들 또한 살아갈 곳이 없다. 사람들이 막버리는 쓰레기들로 동물들의 몸 속에 쓰레기가 들어가 아무 잘못 없는 생명들은 죽어간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에게 간음과 폭행, 또 살인을 하여 죄를 짓는데, 죄에 따른 공정한 처벌을 받지 않고 뽀뽀스럽게 사회에 스며들어 살고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타인을 돌보지 않는다. 약자를 보지 않는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우선시 여기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게 자리잡았다. 이렇게 개인이 전부 자신만 본 채 살아가간다면 과연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 정의로운 내 삶을 위하여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나 분명히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다른 이들을 이끌어주는 이들이 존재하기에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사회에서도 우리는 그들 덕분에 정의라는 가치를 바라볼 수 있다. 때문에 이 사회에 있어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져야 한다. 내가 받은 만큼, 그것의 배로 다시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베풀고 자신 스스로 낮아지며 상대를 높여주는, 섬기는 삶을 사는 이들이 많아져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올바른 규율과 정의로운 각 개인의 가치관, 그리고 도덕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정말 간단히 모든 부분에 있어 접목시키며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알려 주며 또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배운 내용을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내가 다른 공동체를 만들고, 더 큰 공동체로 나아갔을 때 그 공동체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 짧은 고민의 답은 너무나 간단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성경에 쓰인대로 행동한다면 내 삶이 정의로 가득차겠구나. 내 삶이 정의롭게 변한다면 내 주위의 공동체 또한 나로 인해 바뀌겠구나. 그 방향에 있어 지금의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매일 하는 아침 묵상부터 제대로 정말 마음을 다해, 깊게 하려 노력하며 여러 학교 수업들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성경말씀을 그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다. 그 것이 내가 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정의 실천의 한 걸음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라 하시는지 내게 주실 말씀들에 있어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 정의를 바라는 매일을 보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성결 서약문

2022 드리미학교 성결서약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본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고자, 이 성결서약식에 참여 합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 11:45)'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존재로서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나의 영혼과 몸, 성에 대해 성경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둘,

나와 더불어 타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귀한 존재임을 믿고 불건전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성 간의 육체적 접촉을 절제하여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

성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한 순간의 감정과 호기심에 의해 성적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나와 타인은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부모가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성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성이 왜곡되어 표현된 포르노 영상이나 도서, 웹툰 등의 음란한 매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만들거나, 유포, 공유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 성폭력 등의 성적 범죄에 조금이라도 가담하지 않으며 성을 파는 일과 사는 일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덟,

결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맺을 것이며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여 상호 간의 대화와 합의로 이루어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홉,

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절제하고 균형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열,

성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결혼이라고 하는 안전하고도 성경적인 제도를 신성히 여기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짐하는 바이며,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들과 동료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2022년 5월 4일 드리미학교 4기생 박신비

# 절제하는 삶을 위하여

"요컨대 절제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즐거워하지 않고, 즐거움이 없다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며, 마땅히 욕망하지 말아야 할 때는 욕망하지 않으며, 마땅한 것 이상으로 욕망하지 않는다. 그는 진정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지나치지 않게 적절하게 욕구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3권 11장 중에서'

## 1. 내 삶에서 절제가 필요한 부분

- 맛있는 것이 있으면 더 먹고싶어서 먹는 것의 양을 절제하지 못함.
-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함.
- 노는 데 쓰는 시간을 절제하지 못해 매번 늦게 과제를 시작함.
- 자는 시간을 절제하지 못해 과하게 자고 늦게 일어나 하지 못하는 일정이 있음.
- 씩 좋은 내용이 든 가사가 아닌 노래를 듣는 것을 절제하지 못함.

## 2. 빛음 활동 중 절제하고 균형잡힌 삶에 도움이 된 활동

- 내몸빛음을 통해 인체에 해로운 간식들을 줄여가는 것.
- 사명선언문 작성을 통해 내 삶의 사명, 목표와 목적을 정할 수 있었던 것.
- 쾌락과 욕구를 위한 행동들을 절제할 수 있었던 것.
- 언어빛음을 통해 내가 무슨 말들을 쓰고 있는지 알게된 것.
- 매일 아침운동시간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 것.

## 3. 절제하는 삶을 위한 원칙

- 다른 일을 하더라도 목표를 생각하며 제 시간에 완성도 있게 마무리 하기.
- 욕구와 쾌락만을 쫓지 않기.
- 매일의 목표를 정해 그 것을 달성하는 데 초점 맞추기.
- 건강한 몸을 위한 생활 하기.
- 내게 있어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 어떻게 하면 이를 고쳐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에 대한 원칙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기.

## 성결에세이- 나를 돌아보며

나는 성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육체적인 성결만을 떠올리곤 했다. 성결은 마냥 성에 대해 순결한 것만을 일컫는 것인 줄 알았다. 애초에 성결에 대해 별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다. 딱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다양성을 다 존중하는 이 시대에서 살아가며 성결의 문제도 마냥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생각들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대단하거나 큰 변화는 아니지만 나라는 한 사람이 느낀 조금의 변화, 조금의 생각마저 이 수업이 진행된 목적이라는 선생님의 말을 곱씹으며 본 글을 적어본다. 성결의 사전적 의미는 '거룩하고 깨끗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죄와 분리됨을 뜻하는데, 곧 앞서 말한 내용대로 행하여 깨끗해진 상태를 바로 성결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결한 곳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결이 연관이 있다' 라는 수업 내용을 들으며 많은 시간을 걸쳐 도출해낸 결론, 즉 개인적으로 내가 내린 개인적인 성결의 정의는 바로 '나를 지키는 것'이다.

우선은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보려고 한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앞서 말한 존재이므로 그런 존재로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바랄 수 있게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으로부터 멀어질 필요 말이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막는 것은 무엇인가? 세속적인 문화인가 부정적인 생각들인가. 혹시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려 하는 것은 아닐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해져있는 것 같다. 내가 말한 바들이 전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그것이 맞다. 그렇다면 왜 이것과 멀어져야 하는가? 답을 해보자면 성결은 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해하는 것들과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라는 것에 속한 것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몸, 마음과 생각, 영혼이다. 우선 첫번째로 내 몸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나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전인 만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몸에 해로운 음식을 많이 섭취하거나 과도하게 굶는 것, 무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등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몸을 해치는 일이다.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몸과 맞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내 몸을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곳에 함부로 쓰는 것도 성결하지 못한 것이다. 세속적인 한 순간의 감정과 생각으로 나의 몸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절제하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도 없게끔 해야 한다.

두번째로 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모두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정받는다. 그래서인지 절대적인 정답과 진리, 참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 사회에서 나 개인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한다. 그 기준은 단순 생활 방식과 믿음만이 아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그저 흘러가는데로 놔두게 된다면, 결국 약한 쪽으로 가기 마련이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는 삶이 결국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다.

세번째로 나의 영혼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성경에는 하나님 뜻에 대한 지혜를 가지는 것이 나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고 나와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양식이다. 영혼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나의 삶에서 성결이 우선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지금의 내게 성결이 필요한 부분은 마음과 생각인 것 같다. 아직까지 세속적인 것들이 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아직까지의 나는 세상이 말하는 바를 추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조금 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 더 하나님을 원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받아들여지는 것과 아닌 것이 구분이 되다보니 그 둘 사이에서의 합의점을 찾아 생활하는 내 모습이 치사하게 느껴진다. 이곳이 더 성결해진다면 분명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생각또한 그렇게 흘러가 그것이 당연시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다.

내 인생의 주인은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되기도, 어느 때에는 내가 되기도 한다. 비겁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이 이런 것을 어떡하겠는가. 나는 내가 편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바람대로 되지 않고 안될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결단내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좋다가도 어느 때에는 내게 불리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 그럴 때에는 또 외면하고..., 이 것의 반복인 것만 같다. 이런 모습이면 내가 주인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학교에 와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규정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있어서도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의 내 삶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이 없이 살아간다면 내 삶에서 온전히 행복과 감사를 느끼기 힘들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기준이 있기에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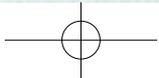
나는 하나님에 대해, 내 몸에 대해, 생각에 대해, 행동에 대해 성결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나는 어리석으며, 나에게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앞서 말했던 나를 지키는 삶, 즉 성결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 학교에서 살며 좋은 급식을 먹고 있지만 내 스스로 나에게 먹이는 음식들은 여전히 그닥 좋지 않고 매일 하는 생각 또한 오히려 성결과 거리가 멀다. 나를 지키는 생각은 커녕 자주 후회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영향을 준 행동이 나와 다시금 후회할 상황이 찾아오고 성결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성결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이를 반복하고 있다.

나를 되돌아보며, 나의 성결을 되돌아 보며 나는 나를 지키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대체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앞으로 성결한, 나를 지키는 삶을 추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를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나를 기대하며 본 글을 마친다.



빛음 2단계



## 평화 에세이

가치기초소양 수업 중 선생님께서는,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선은 폭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폭력은 너무나 일상화 되었다. 단순히 전쟁같은 개념이 아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더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있어 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폭력이 되었을 줄 모른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 그런가, 내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나의 생각과 말이 내 자신에 대한 폭력일 경우 나는 내 자신과 평화롭지 못한것이 된다. 그래서 나는 평화라는 것이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폭력이 없는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의 기준선인데 내가 생각하는 우리는 아직 폭력이 없는 관계도 아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성품에서 평화를 가지기란 정말 어렵고 힘든 것 같다. 때문에 나는 그저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평화를 느낀다. 하늘과 같은 자연들을 보면서 말이다. 그것들은 변하지 않기에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해보면 평화라는 것이 그냥 그런 게 아닐까 싶긴하다.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것. 자신의 위치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 떠있는 해가 나무에게 양분을 주는 것 같이 다른 이를 섬기는 것, 그것이 평화인 것 같다.

그렇기에 앞으로 평화롭기 위해서,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 내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겠다.

왜 사냐건 웃지요.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닳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닳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관용은 미덕이다.

관용은 미덕이다. 관용은 미덕이다. 관용은 미덕이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관용은 미덕이다. 왜 사냐건 웃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닳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왜 사냐건 웃지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닳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왜 사냐건 웃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왜 사냐건 웃지요.

관용은 미덕이다. 관용은 미덕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 지역 연구 인물 인터뷰

애틀라 영상팀 윤영규PD님

Q. 몇 살 때부터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셨나요?

A. 영상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때 봉준호 감독의 괴물을 보고 영화에서 영상으로 관심분야를 돌렸다.

Q. 영상 제작 과정 중 어떤 것이 가장 좋으신가요?

A. 라이브 중계를 좋아한다. 긴장되는 것이 좋다.

Q. 직업을 영상분야로 삼아야겠다. 이걸로 먹고살아야겠다 했던 계기가 있으신가요?

A. 대학교 1학년 때 영상 동아리를 하면서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전공을 살리고 싶다.

Q. 그 선택을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A. 내 노력에 따른 결과물을 봤을 때 그 성취감이 커서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다.

Q. 영상이 싫었던 적은 없으신지. 슬럼프가 어떤 방식으로 오셨나요?

A. 개인 플랫폼을 한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텐데 한 직장엔 소속되다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와 내가 생각하는 바가 달라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펼쳐낼 수가 없다. 그것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고 느꼈다.

Q. 기업의 기독교적 정신이 영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사내예배는 물론이고 다른 영상을 만들 때에도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Q. 촬영한 영상 중 어떤 것이 제일 기억에 남나요?

A. 손흥민 선수 중계와 같이,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상을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애틀라 안에서는 헤모힘이 기가막혀를 기획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Q. 영상팀만의 문화가 있나요?

A. 할 때 다같이 하고 쉴 때 다같이 쉬는 문화가 있다.

Q. 영상팀이 앞으로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있나요?

A. 개인적으로 방송국을 목표로 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 물품과 같이 영상도 유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쿠팡이나 넷플릭스와 같이 애틀라도 애틀라만의 영상컨텐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주로 협력하여 일을 진행하는 팀은 어떤 팀이 있나요?

A. 마케팅팀이랑은 펠레야 펠 수 없는 관계이다. 여러 팀들이랑 다 엮인다.

Q. 영상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자신만의 잣대, 나만의 기준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걸 놓치는 순간 내 컨텐츠가 되지 않는다.

주제	<b>물품 보관함 설치</b>
문제개요	근래 맥북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은 항상 맥북을 지니고 다닌다. 하지만 식사나 운동 시에 이를 보관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학생들은 고가의 맥북을 주변 책상이나 선반, 맨바닥에 까지 놓아두게 된다. 이는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며 파손 될 위험을 초래한다. 이외에도 책이나 가방 같은 소지품이 곳곳에 무질서하게 놓여져 있어, 미관에 좋지 않고 시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으며 많은 곳에서, 관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미있는 청중	소지품을 지니고 다니는 학생과 선생님을 비롯한 외부 손님까지,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다.
필요한 정보와 지식	사람들은 물품 보관함을 원하는가?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가? 물품보관함의 필요성을 느끼는가?(보관함 부족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가?) 평소에 사람들이 어떤 짐을 어느 정도 가지고 다니는가? 보관함이 어떤 크기여야 하는가? 이용자들의 어떠한 보관함을 원하는가? 어떤 장소에서 보관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물건이 많이 널브러져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방안) 보관함을 설치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여건이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관함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대부분 사람의 동선이 걸치는 장소는 어디인가? 보관함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시중 보관함 종류 알기(용도에 따른 종류)
브레인스토밍	보관함 종류 문 없는, 문 있는, 노트북 전용, 이데알레 얼음 문
위치	체육관, 급식실, 급식실 옆 1층 창고(내부나 앞), 추천도서 책장, 플레이스퀘어, 본관 라운지
제공	핸드메이드 (홀리워크 or 목공) 학교의 지원으로 보관함사에서 구입
문제 해결 방법	[물품 보관함 설치] 식당, 체육관, 플레이스퀘어 등 여러 곳에 도어형 물품 보관함을 만든다. 설문조사, 보관함 선정, 규칙 제정, 관리 계획, 기획안 작성, 제출(발표), 피드백 보완, 결재 후 구입, 설치, 홍보 및 안내, 추후 관리
액션 플랜	설문조사->구글설문지 활용 선호도 조사 보관함 선정(자료 조사) 종류/ 디자인/위치/규칙 제정, /관리 계획/책임감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규칙 제정 각 시설 보관함 관리자 선출 /기획안 작성, 제출(발표)/피드백 보완 결재 후 구입/ 학교 예산/ 설치 홍보 및 안내, 프로젝트 소개, 물품 보관함 사용 방법과 위치 안내, 사용 규칙 안내 추후 관리 (회수 여부, 분실물 관리, 청소 등 교대로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관리) 관리, 건의 내용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리 사용에 차질이 생길 시, 협의 후 이용자들에게 공지
역할분담	설문 조사, 홍보 (1명) : 설문지를 통해 주로 가지고 다니는 짐의 종류와 원하는 물품 보관함 종류를 조사한다. 모두가 물품 보관함의 존재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물품 보관함 사용법과 위치를 알린다. 물품 보관함 선정 (2명) :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한, 물품 보관함을 선정하고 구매한다. 규칙 제정, 추후 관리 (다함께) : 물품 보관함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망가뜨리지 않고 청결하게끔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든다. 유지가 되도록 하루에 한 번씩 관리하다 점진적으로 횟수를 줄여나간다. (예: 매일 -> 주 3회)

## 3P창의활동 계획

활동명	storyboard draw [ :DD ]
문제 개요	<p>본 활동은 스토리와 그 스토리보드의 구성, 연출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토대로 그림을 그려 만화, 영상 등을 만드는 수업이다. 스토리보드란 영화 시퀀스를 개별적인 프레임이나 패널로 구분해 시각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한다.</p> <p>어떻게 하면 그림이라는 도구를 전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출로 내가 담고 싶은 메시지를 보다 확실하게 담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수업이다</p>
의미있는 청중	이야기를 보다 확실하게 전하고 싶은 사람들, 만화 영상 등 창작물을 더 퀄리티있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
자료 & 재료	<p>노트북, 펜타블렛, 그림공책, 필기구</p> <p>연출의 기초란 무엇인가?</p> <p>스토리보드 연출(컷 구성은 어떻게 할까)</p> <p>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연출</p> <p>칸만화, 영상크로키, 연출</p> <p>스토리보드TVconti</p> <p>스토리 보드 제작 노하우(책)</p>
내용 및 활동	<p>- 스토리 보드 제작 노하우 읽기</p> <p>a) 1~2장 → '덧칠하다' 각본 분석 / 캐릭터 디자인 a-1) ccm 가사로 컷을 연출하여 그려본다. --&gt; 잇쉬가 잇사에게 - 김복우 Official</p> <p>b) 3~4장 → 책에 있는 그림 하나당 3~5장 모작 / '덧칠하다' 연출 초안 짜서 그리기 b-1) 영상크로키를 통해 다양한 컷을 그림으로써 연출컷을 이해한다. 1. The Greatest Showman (위대한 쇼맨) OST - A Million Dreams [Part. I] (Lyrics 해석) 2. Disney's Beauty And The Beast   Sneak Peek</p> <p>c) 5~6장 → 카메라 신경쓰면서 초안 수안</p> <p>d) 7~8장 읽기 → 인물들 움직임 넣기</p> <p>1. 전체적인 스토리보드 초안 완성 2. 책 재정독 하며 자가 피드백 3. 수정 후 선 입히기, 그림 그리기.</p>

## 빛음 2단계를 마치며

나는 나에게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능력은 생각에 비해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무언가 하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나는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면서 정작 실행에 옮기지 않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껏 해 온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었다. 나는 게으르고 자만하며 소극적인 사람이었다. 나는 진심으로 당당해 지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다. 나는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의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용기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나는 주도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나는 행동거지가 가벼운 사람이었다. 나는 내 진심을 말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리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바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무슨 일에 쉽게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동안 배운 가치를 토대로 드림학교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또 3년 간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드림학교를 졸업할 때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를 생각해보고 글로 정리해보자. 어떤 일을 할때도 이 드림 공동체가 신앙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매일 구해야겠다.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찾아야겠다. 나는 근 3년간 꼭 그림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싶다. 그림으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등 내 프로젝트 성과물을 sns에 올리고 싶기도 하다.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완성도 있는 그림을 꼭 몇 작품 이상 만들어내고 싶다. 이야기를 창작해 그와 관련된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내가 나를 더욱 더 알아가는 시간도 가지고 싶다. 아직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이 많다. 작곡이랑 작사도 해보고 싶다. 음악을 만들고 가사를 쓰고... 그 영상까지 직접 만들어내고 싶다. 기타를 배우고 싶다. 일력이면 좋겠지만 베이스도 좋다. 영상을 기획해 찍고 편집해 영상물을 만들고 싶다. 동화책도 만들어보고 싶다. 공동체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기왕이면 중요한 역할을 맡아보고 싶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싶다. 마땅히 그럴만한 사람이 되고싶다. 드림학교를 졸업할 때 다른 것은 무엇이든 좋으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비전을 찾아 확실하게 내가 해나갈 길을 알고싶다.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 미리 쓰는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공동체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해준다는 것을, 공동체와 함께할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내가 나아가고자 할 때 또 다른 이도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나는 더욱 많은 것을 행하고, 보여야 하는 사람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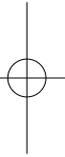
내 자신을 숨겨놓았을 때 얻게 되는 것은 결국 수치일 뿐임을.

나를 진정으로 원함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님을. 나는 배웠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 7:7)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